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 오후 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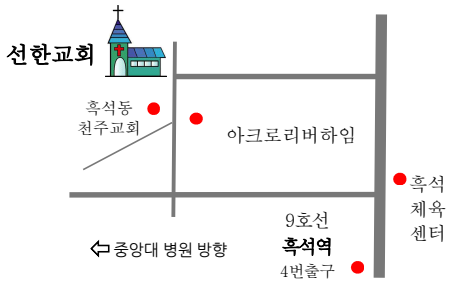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파 워 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청 년 부	오후 1: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비 전 워 십	오후 2: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안 나 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교육목사	정 용 준	
	협동목사	홍 진 표	
	교육전도사	윤 영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협 력 교 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안에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박 희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박 영 근, 윤 호 중	
		편 도 선, 이 태 수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관 리 장 로		손 석 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 천 사 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 16:5)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00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부)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경배	95장 (통일찬송가 82장)	
교 독 문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찬양과경배	523장 (통일찬송가 262장)	
기 도	조계승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엡 3:14~21
설 교	**두번째 환상: 7 대접심판 1** (임춘배 목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 레시피**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이혜경 권사	다 함께
환영및광고	인도자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지어져 가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커피브레이크 모임

주 일 오 후

셀가족모임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 임춘배 목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1~3)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마리아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셀 가 족 모 임 오늘 오후 예배는 셀가족모임으로 진행합니다.

3. 맥 추 감 사 절 다음 주일(7월 6일)은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월삭새벽예배
총동원금요기도회
7월 1일(화) 월삭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주관: 분당/안산/상도)
7월 4일(금) 총동원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주관: 드보라/요셉/마리아)

5. 헌 신 예 배 7월 13일(주일) 오후 예배는 요셉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6. 전교인수련회
1. 2부 예배 후 수련회 준비위원 모임이 1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 윤호중, 백상열, 김현석, 심지숙, 방성자, 박대수, 구영서]
2. 2025년 전교인 수련회 참석 신청을 받습니다.
1) 1층 로비의 참가 신청서에 기록.
2) 교회 단톡 공지방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날짜: 8월 3일(주일)~5일(화)
* 장소: YBM연수원

7. 국 내 선 교
1. 국내선교를 위한 후원 신청: 본당 2층 로비의 신청서에 작성해주세요.
2. 국내선교 후원을 위한 음료수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 국내선교
- 날짜 및 장소: 7월 21일(월)~23일(수) / 원주 주안에교회
- 내용: 노방전도, 찬양집회, 다음세대 전도 모임

8. 바 자 회
1. 국내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7월 13일(주일)에 있습니다.
1) 국내선교에 필요한 물품 제공을 받습니다.
2) 바자회에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품 협찬을 받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룩한 신앙이 되도록.

가정예배 —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할 때

찬송 : 내 맘이 낙심되며 (300장)
본문 : 수 7:1~9절

말씀 :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패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한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후퇴하느라 바빴고 그 결과로 36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전투는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아이성에서 일어난 패배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패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맞는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림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티끌을 뒤집어쓰는 것은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아이성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충격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못하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 충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큰 교훈으로 삼아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후자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한때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와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여호수아처럼, 또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재를 뿌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실패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 **두 번째 환상: 7 대접심판 1** (계 16:1~9)

서 론 —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3가지 심판 시리즈를 봅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7대접 시리즈입니다.

본 론

1. 7대접 심판1
(1) 서론(15장): ①7대접심판 예고(1절) ②어린양의 노래(2-4절) ③7대접 가진 천사 소개(5-8절)
(2) 7대접심판 내용: ①특징: 나팔 심판과 구조가 비슷(출애굽 재앙 모델) ②차이: 심판의 강도/대상/구조
(3) 1-4째 대접 심판: ①첫째심판: 땅(2절) ②둘째심판: 바다(3절) ③셋째심판: 강과 물의 근원(4-7절) ④넷째심판: 해가 사람들 태움(8-9절)

2. 교훈
(1) 7대접 심판과 7나팔 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2) 1-4째 대접 심판의 내용은?
(3) 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 론 — 심판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2부 예배 헌금	심지숙 집사	김은희 권사
오후 예배 기도		구영서 집사
주 방 봉 사	마리아회	요셉회

매일 Q.T.

주님 성전을 사모하는 복된 마음

날짜 : 6월 30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본문	시편 84:1~12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주님 성전에 거하기를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힘을 얻어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그는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에 살기를 원하며, 성전 문지기로 있고 싶어 합니다.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은 그분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묵상질문 1	주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 84:1~7 시편 기자는 성전에 집을 지은 참새들과 제비들을 부러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집(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요?
묵상질문 2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84:8~12 시편 기자가 평범한 천 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 더 소원한 삶은 무엇인가요? 내가 평생에 소망하며 꿈꾸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84편 3절 '나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유격을 붙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같이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천지 만물도 다 채울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나'라는 작은 존재를 만나 주시고, 나의 경험과 시선 속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그 복된 만남이 성도에게 가장 존귀한 행복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

찬양과 기도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가 293장,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묵상 나눔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갈망하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새 아침의 사람이요,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의 새 아침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 신동엽은 〈새해 새 아침은〉이라는 시에서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새 아침을 열 우리의 대화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브니엘을 구하는 대화, 즉 하나님의 얼굴(은혜)을 구하는 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묵상한 말씀에 대한 은혜와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은혜의 간증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새 아침을 가져올 우리의 눈빛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즉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살겠다는 믿음의 눈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에 빠져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브니엘의 새 아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김근영, 「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두란노)
말씀나누기	시편 80:1~19
묵상포인트	80편은 79편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비극을 애도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민족 애가'입니다.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등 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과 70인역 표제에 '앗수르에 관한'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주전 722년 앗수르의 침입으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로 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청합니다. 특히 3, 7, 19절에 반복되는 후렴구를 중심으로 삼중 구조를 이루며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목자와 양, 주와 백성,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 등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이 드러납니다.
관찰과묵상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나요? (1~3절)
적용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멀리 뻗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짓고 불순종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그분의 얼굴 빛을 비추시고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얼굴 빛을 제게 비추어 주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날짜 : 7월 4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시편 88:1~18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죽은 자는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할 수 없기에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버리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고, 주님의 진노가 넘치며,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마저 멀리 떠났다고 호소합니다.
묵상질문 1	주야로 부르짖음 88:1~9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었나요? 고난이 이중 · 삼중으로 겹칠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묵상질문 2	흑암 속에서 부르짖음 88:10~18 흑암에 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줄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한절묵상	시편 88편 13절 고통이 클수록 더 강력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 냈습니다. 잠을 깨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도 없습니다. 성도의 기모든 기도는 금향로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계 8:3~4). 하나님 앞에 쌓인 기도는 그분의 때에 합당하게 응답 될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두려움과 고난이 저를 덮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가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매일 Q.T.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	날짜 : 7월 1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본문	시편 85:1~13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한 후, 그분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가깝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며, 의와 화평이 입 맞추고, 땅은 산물을 낼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85:1~9 포로지에서 돌아온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 암담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85:10~13 시편 기자가 꿈꾸며 노래한 세상은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절묵상	시편 85편 8절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신 후에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이란 죄와 심판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인 사슬에 매여 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 가운데 진실을 전하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매일 Q.T.	은총의 증거로 위로를 주소서	날짜 : 7월 2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문	시편 86:1~17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궁핍한 상황에서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가 그의 영혼을 찾기에, 그는 자신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묵상질문 1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86:1~7 환난 때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86:8~17 환난 중에 시편 기자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한절묵상	시편 86편 1~3절 믿음의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가난'은 생활의 어려움에 눌려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궁핍'은 결핍으로 인해 소망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 은혜를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저를 도우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Q.T.	모든 민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날짜 : 7월 3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본문	시편 87:1~7
말씀요약	하나님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셔서 성산에 그분의 터를 세우셨습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니 이방 민족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등록하시는 민족들이 거기서 났다 하실 것이며, 노래하는 자들은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87:1~3 시온성을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집(성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나요?
묵상질문 2	열방은 하나님 자녀 87:4~7 시편 기자는 다섯 나라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열방의 구원을 위해 내가 다짐하고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87편 7절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임재하시는 도성입니다. 시온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터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만민의 구원을 위한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던 모든 나라가 시온을 영적 근원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복의 근원이자 거룩한 처소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의 지체이자 교회로서 살아갈 때,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소서.